

백운규 장관,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 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철강...토론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9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당진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을 포함한 25% 관세폭탄을 전격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 피해의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식 사장, 5개 권역 안전 대토론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9일 철도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현장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현장 직원과의 '안전 대토론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9일 중부권에서 시작된 토론회는 수도권 14일, 영동권 16일, 호남권 21일, 영남권 23일 순으로 개최된다.



문재경
전기전자재료학회
산화갈륨기술연구회 위원장

“산화갈륨은 질화갈륨, 탄화규소 등 와이드 밴드갭(WBG; wide-bandgap) 반도체보다 밴드갭이 더 넓고 물성이 우수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고온·고압, 고성능 전력반도체, 방사선 등 내환경 센서, 자외선 단파장 광소자, 우주항공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 새로운 반도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지요.”

문재경 전기전자재료학회 산화갈륨기술연구회 위원장은 “질화갈륨, 탄화규소 반도체는 밴드갭이 매우 넓다. 밴드갭이 넓으면 보다 고전압, 고전력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 산화갈륨은 질화갈륨, 탄화규소보다 밴드갭이 더 넓어 보다 높은 전압, 전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장점은 동일한 성능을 더 작은 디바이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칩 사이즈가 작아지면, 해당 디바이스로 만드는 모듈, 시스템도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

을 만들기가 쉽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일부 선진국들은 산화갈륨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 기초·상용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소재강국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2016년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수요조

“산화갈륨,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으로 각광”

선진국 기초·상용화 연구 시작...관련분야 연구로 새로운 기회 창출해야

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용 설비, 전기자동차, 작게는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기기까지 보다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 위원장은 “온도, 압력, 방사선 등의 극한 환경에도 견디는 힘이 좋다”며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편기물 처리장 등에도 최적화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관(웨이퍼) 성장이 매우 쉽다는 겁니다. 질화갈륨, 탄화규소 등은 웨이퍼를 크게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질화갈륨의 경우 아직 큰 기관이 없습니다. 반면 산화갈륨은 액체 속에서 웨이퍼를 성장시킬 수 있어, 기관

사를 진행했고,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 제안해 '고품질 Ga₂O₃ 에피소재 및 전력소자 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됐죠. 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의 산화갈륨 전문 연구단체인 산화갈륨기술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국책 과제는 유제이엘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충남대, 홍익대, 서울대, 씨지트로닉스 등 7개 기관·기업들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며 “연구회에서는 정기 워크숍과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산화갈륨 기술의 국산화와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ube@

정순남 前전남도 경제부지사 (전자산업협회 부회장)



나주시장 출마 선언

정순남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6·13 지방선거 나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전 부지사는 12일 나주명화루(금성관 옆)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나주의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나주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감히 나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나주를 동능이 함께하는 품위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제2의 영산강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주시를 품격 있는 의로운 도시로 조성 ▲우리나라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조성 ▲복지농촌 건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등을 약속했다.

나주 출신인 정 전 부지사는 1961년 생으로, 1982년 행정고시(26회)에 합격한 뒤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산업부 근무 당시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장과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 파견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에너지업계에서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정형석 기자 azar76@

효성, 효성챔피언십 모금 기금으로 베트남 학교에 도서관 기증

효성은 효성챔피언십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의 모금기금과 법인 및 직원의 기부금으로 베트남 현지 학교에 미니도서관을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찌민시 인근에서 진행된 효성챔피언십 대회 시 경품판매 수익금과 법인 및 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효성의 사업장이 위치한 동나이성 년짜지역 빈탄 초등학교에 미니 도서관을 기증했다.

효성은 낡은 학교의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해 도서관으로 꾸미고, 여건이 되지 않아 책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100여권, 컴퓨터 10여대를 기증했다.

효성은 푸옥티엔 초등학교, 힘푹 초등학교 등 2015년부터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5개의 미니 도서관을 기증한 바 있다.

또 효성의 해외 의료 봉사단 '미소원정대'는 지난해 11월 گیا대체과 함께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할 당시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심층 검사했으며, 총 30여명의 안경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지난 2월 응우옌 수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 13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세계 1위 스파넥스·



효성은 KLPGA 대회의 모금 기금으로 베트남 빈탄 초등학교의 낡은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해 도서관으로 꾸미고 도서 및 컴퓨터를 기증했다. (맨 앞 효성 베트남법인 유선형 상무, 두 번째 KLPGA 김경자 전무)

타이어코드뿐 아니라 화학·중공업·건설 부문 등의 현지 사업 확대를 협의한 바 있다.

송세준 기자 21ssj@

임국희 KINS 선임연구원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임국희 KINS 선임연구원(사진)이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성계용)은 원자력안전연구실 임국희 선임연구원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 판에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재학 기자 zjh@

1899년 출간을 시작한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매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보인 인사를 선정해 소개한다.

임 연구원은 지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제과학논문 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복합도시정 책과장 성호철

전기조합-충북도립대

물적·인적 교류 '산학협력'

전기조합(이사장 광기영)은 최근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단장 김평중)과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조합과 충북도립대는 앞으로 ▲산학협력 위원회 구성 및 참여 ▲상호 시설 및 장비 교류 ▲온·오프라인을 통한 협력활동 ▲산학협동 교육 실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결실화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학생 특강·취업·현장실습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조합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면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세준 기자

Advertisement for Sungjin Transformer.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nsformer, the slogan '一生一業' (One Life, One Career), and the text '오직 장인정신으로 변압기만 만듭니다' (We only make transformers with the spirit of a craftsman). The main product is '진공주형 몰드변압기 CAST-RESIN TRANSFORMER'. Key features listed are '빠른납기!!' (Fast delivery!!), '고효율!!' (High efficiency!!), and '저소음!!' (Low noise!!). The company name 'SUNGJIN TRANSFORMER' and website 'www.sjtr.co.kr' are prominently displayed. A list of products includes vacuum cast resin transformers, self-healing transformers, and various types of cast resin transformers.